

K리그 자존심...우리는 16強으로 간다

광주FC, 오늘 상하이 하이강 상대 ACLE 원정 6차전

상하이 선화戰 승리 자신감, 強팀에 더 강한 광주 투혼 결집 철벽 수비·완벽 조직력...허울 선봉 제공권 장악 필승 전략



K리그의 자존심 광주 FC가 ACLE 16강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는 3일 오후 9시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 우승팀 상하이 하이강과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6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달 27일 홈에서 상하이 선화를 1대0으로 꺾고 상승세를 탄 광주는 일주일 만에 상하이 푸둥 스타디움으로 자리를 옮겨 첫 중국 원정어나선다.

광주는 지난 상하이 선화전에서 교체 투입된 아사니의 천금같은 결승골로 ACLE 4승째를 올리며 1위 고베와 승점 1점 차이로 2위를 기록 중이다.

광주(4승 1패 승점 12)가 상하이 하이강(2승 1무 2패 승점 7)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승점 15점으로 16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짓게

수 있다. 광주는 최근 치른 3경기에서 단 1실점만을 기록하며 찌릿 수비를 자랑하고 있다.

국가대표 수문장 김경민을 필두로 변준수, 김경재, 안영규 등의 센터백 라인이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잘 짜인 조직력을 통해 단단한 팀 전력을 구축했다.

공격에서는 지난 상하이 선화전에서 아사니의 골을 도운 허울과 측면에서 시종일관 상대를 흔들며 기회를 창출한 최경록이 공격을 이끌 전망이다.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신창무와 경기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이희균 역시 기대요소 중 하나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중국 슈퍼리그 우승을 거둔 상대 상하이 하이강은 전북 현대 출신의 공격수 구스타보를 필두로 중국 간판 공격수 우레이, EPL 출신 오스카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준비한 팀이다.

상하이 하이강은 지난 울산과의 ACLE 5차전에서 공격수 바르가스 헤트리에 힘입어 3대1 완승을 거두는 등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입증했다.

강력한 상대지만 결코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하이 하이강은 공중볼 처리에 취약하며 위험한 상황을 자주 노출했다. 광주의 장신 스트라이커 허울이 제공권 장악 능력을 앞세워 상하이 선화전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상대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황패스에도 취약점을 노출하는 만큼, 정호연과 최경록의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승 1패로 2위를 기록 중인 광주는 K리그 팀 중 가장 높은 순위이자 유일한 16강 진출 순위권에 랭크돼 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ACLE 16강 진출을 9부 능선을 넘으면서 내년 시즌 준비에 돌입할 수 있다.

길었던 2024년의 마지막 경기를 앞둔 광주가 중국팀과의 2연전에서 모두 승리하고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 안방서 두번째 천하장사 등극

올해에만 장사 6회 싸늘이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가 통산 두 번째 천하장사에 등극했다.

김민재는 지난 1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천하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김지울(울주군청)을 3-0으로 꺾고 천하장사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민재는 8강에서 최성민(태안군청)을 2-0으로, 4강에서 김현영(정읍시청)을 2-1로 꺾고 천하장사 결정전에 올랐다.

김민재는 김지울을 상대로 첫 판과 두 번째 판 밀어치기에 성공해 승기를

잡았고, 마지막 판에서 들배지기로 김지울을 높혀 생애 두 번째 천하장사에 올랐다.

울산대 재학 시절 김민재는 2022년 천하장사 대회에서 1985년 이만기(당시 경남대 4학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생 천하장사로 가마를 뒀다.

김민재는 올해 문경장사, 단오장사, 보은장사, 삼척장사, 추석장사에서는 백두장사(140kg 이하)에 올랐고 마지막 대회인 천하장사대회에서는 천하장사를 차지해 6개 대회를 싸늘이했다. 통산 장사 타이틀은 14회(천하장사 2회, 백두장사 12회)로 늘렸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천하장사 트로피를 들어 올린 김민재. <대한씨름협회 제공>

남도배드민턴협회장



박계옥 전남배드민턴협회장(오른쪽)이 이희재 선거운영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임기 내 남자 실업팀 창단...생활체육 활성화 전력”

단독 출마 박계옥 전남배드민턴협회장 연임 성공

“임기 동안 남자 실업팀을 창단해 화순군청 여자 실업팀과 남·여 균형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인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전남도교육청, 일선 학교측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박계옥 전남배드민턴협회장이 제3대 전남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에 단

독후보로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단독 출마한 박계옥 회장은 무투표로 지난날 19일자로 당선인으로 결정,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박 회장은 국내 배드민턴대회 중 가장 큰 국제대회인 코리아오픈대회를 유치해 목포, 여수, 순천 등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지원 공약으로

학교체육관 임대나 사용자 절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했으며, 코로나19로 닫힌 체육관을 재개방해 동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박 회장 임기 중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체육 균형 발전으로 역할을 인정 받은 전남배드민턴협회는 2022년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최우수단체, 2023년 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희중 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대한택견회 명예 단증 받아

택견 저변확대 기여 공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대한택견회로부터 명예 6단 단증을 수여받았다.

광주시체육회는 2일 “광주시체육회 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이일재 대한택견회 회장 등 대한택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단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택견회 명예 단증은 택견 종목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4년 임기 동안 11명에게 수여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5년 만에 택견 종목 광주시 대표선수를 선발, 출전시켜 종목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6단 단증을 받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택견 명예 유단자로서 택견 종목이 인기종목



전갑수(왼쪽) 광주시체육회장이 2일 이일재 대한택견회에게 명예 6단 단증을 수여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며 “국가 무형유산이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택견 종목이 올림픽 종목에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 기자



도드람 2024-2025 V리그 올스타에 선정된 박정아(왼쪽)와 장위 <KOVO 제공>

A페퍼스 MB 장위·OH 박정아

V리그 올스타 무대 뒀다

페퍼커피는 A페퍼스 박정아와 장위가 ‘별들의 잔치’에 초대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1일 내년 1월4일 춘천에서 열리는 2024-2025 V리그 올스타전에 나설 출전 선수 남녀 40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올스타전 팬 투표는 선수 선정 방식을 비롯해 팀 배정까지 새롭게 바뀌었다. 기존 100% 팬 투표에서 팬 투표 70%+선수단 투표 15%+미디어 투표 15%를 합산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팀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전 시즌 최종 성적을 기준으로 K스타(1, 3, 5위)와 V스타(2, 4, 6, 7위)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아포짓 스카이크 2위, 아웃사이드 히터 1, 4위, 세터 2위, 미들블로커 1, 4위, 리베로 1위가 K스타, 아포짓 스카이크 1위, 아웃사이드 히터 2, 3위, 세터 1위, 미들블로커 2, 3위, 리베로 2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V스타로 호흡을 맞춘다.

팬투표 결과 장위는 총점 36.47점으로

미들블로커 포지션 1위를 차지하며 K스타, 박정아는 총점 21.93점으로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 3위에 자리하며 V스타로 뒀다.

K스타에는 장위를 비롯해 신평과 허수봉, 장한용, 아다토, 신영석, 김민재, 박정민(이상 남자부 투표), 이호건, 김경호, 부용찬(이상 남자부 추천), 실바, 김연경, 황민경, 김다인, 양효진, 신영경(이상 여자부 투표), 김지표 70%+선수단 투표 15%+미디어 투표 15%를 합산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V스타에는 박정아를 비롯해 비에나와 임성진, 레오, 한태준, 최민호, 김준우, 정민수(이상 남자부 투표), 이준형, 신호진, 김지한(이상 남자부 추천), 빅토리아, 강소휘, 엄혜선, 이다현, 김수지, 임명옥(이상 여자부 투표), 이고은, 메가, 최정민(이상 여자부 추천)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배구여제’ 김연경은 팬투표에서 3만922표를 받아 3년 연속, 역대 네 번째(2020-2021, 2022-2023, 2023-2024, 2024-2025시즌) 올스타전 남녀부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았다. /박희중 기자

KIA, 통합 우승 기념 상품 2차 출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4 KB O 리그 통합 우승을 기념해 2차 우승 기념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2차 상품 출시에는 통합 우승 기념 유니폼, 통합 우승 엔트리 후디, 우승 엠블럼 메달 벽시계, 포도북 등 총 6종이 포함되며 온라인 티스토리어를 통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예약 판매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단 티스토리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주홍철 기자